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2월 15일(주일) 제1274호

나누는 기쁨, 커지는 감동

대학청년부 '2019 사랑애티눔사역' 종료...11개 공동체 청년 1,070명 1천여 가구 방문

대학청년부가 '2019 사랑애티눔사역'을 지난 11월 30일(토)과 12월 7일(토) 실시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1,070명이 서울 시내 불우 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여 가구를 방문해서 쌀과 반찬, 생필품 등을 선물했다.

11월 30일에는 요셉공동체 중랑구복지관, 길공동체 종로노인복지관, 허브공동체 신양장로교회, 나눔센터, 중앙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12월 7일에는 여호수아공동체 교남주민센터, 사직주민센터, J4U공동체 도봉구노인복지관, SNS공동체 수서명화복지관, 산마루교회, W공동체 나섬교회, Pole2공동체 작은자교회, 하늘공동체 관악노인복지관, 갈렙공동체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공동체 등대교회를 방문했다.

장해연 자매(요셉공동체)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갔기를 소망한다"면서 "사랑애티눔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하고 체험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연말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시기"라면서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예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청년부에서는 '2019 크리스마스 블레싱'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66개 팀이 지역교회, 군부대, 요양센터 등지를 찾아가 성탄절 특선, 식사 나눔, 어린이사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638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사랑챔버 '희망콘서트'

12월 18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온누리 사랑챔버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번 주 수요일(18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

온누리 사랑챔버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희망콘서트는 사랑챔버 단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다. 지휘는 손인경 집사(사랑챔버)와 박상현(모스틀리 필하모닉)이 하고, 소프라노 오은경, 테너 하만택, 바리톤 양태중이 협연을 선보인다. 희망콘서트 입장권은 오늘(15일) 1~4부 예매 이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로비에

서 판매한다.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인 입장권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할인된 가격(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박철웅 목사(온누리 사랑챔버 담당)는 "온누리 사랑챔버가 지난 20년 동안 장애를 뛰어넘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온누리 사랑챔버 20주년 희망콘서트에 오셔서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10-8725-6106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가 시작됐다. 지난 12월 9일(월) 시작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내년 1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와 기도처 등지에서는 CGNTV를 시청하면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서빙고 온

누리교회 기준으로 매일 평균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중보기도도 하고 있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와 대학청년,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12월 25일과 2020년 1월 1일은 성탄예배와 신년예배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대체한다.

/ 정현주 기자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예배소서 4:7-16(12월 19일 본문)

본문 주제: 성숙(성도는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영상제목: <서로를 위한 기도> 케빈 드영 목사

내용: 우리는 은혜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기도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를 위해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요즘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서빙고, 양재 2020년 우선주차증 발급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 오늘(15일)부터 '2020년 우선주차증'을 접수받는다.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준은 장애인(국가발급 장애인증 사본제출), 70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동반차량(만 6세 미만 2명 이상(서빙고), 만 7세 미만 3명 이상(양재)), 임신부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122, 양재 02-570-7430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야말로 예수 따르는 삶”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에 빚대어 질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 주인공은 온누리교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사진봉사를 하고 있는 박종익 집사(마포공동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다.



온누리교회 ‘작은 거인’ 박종익 집사

박종익 집사는 온누리교회에서 29년째 사진봉사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그가 빠진 적이 없다. 설교하는 목회자의 모습,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등을 빠뜨리지 않고 사진으로 담아낸다. 몸에 장애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온 예배당을 누비며 예배자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그를 성도들은 ‘작은 거인’이라고 부른다.

박 집사는 어릴 적 앓았던 구루병으로 인해 등이 굽고 키가 자라지 않았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에서 만큼은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대상 바로 앞까지 나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성도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 박 집사가 30년 가까이 사진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이다. 말씀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과 성도들의 시선을 있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을 말씀에 빚대어 질문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박 집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흥대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다. 사진관을 오래 운영하며 주변 상인들과 지인들의 신임을 얻었던 박 집사는 흥대 앞 아름다운 거리 추진위원장을 맡았었다. 박 집사는 당시 구청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흥대 거

리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위원들과 기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을 처리했다. 여러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잘 마무리 됐다. 그런데 흥대 거리 조성이 점차 완성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건물 주인들이 상가임대료를 높였고 결국 사진관 문을 닫아야 했다. 그래도 박 집사는 끄떡없었다. 다른 길로 인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었다. 그때 당시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렘 4:19)는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 앞길 하나쯤은 거뜰히 책임져주시지 않겠어요?(웃음)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의 사역은 사진봉사뿐만이 아니다. 박 집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마루교회 해

맞이 대학 배식봉사, 서울역 쪽방촌사역, 서울역 밀짚모자 청소, 누리사랑공동체 봉사 등을 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는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는 말씀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막 12:33).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박 집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매순간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 도구

1. 큐티(QT)지

가정예배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일단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그 다음이 막막하다면 큐티(QT)지를 펼쳐라. 큐티지를 활용하면 가정예배가 쉬워지고 더욱 알차기 때문이다. 두란노서원에서 출판하고 있는 <생명의 삶>(성인), <senA>(중고등학생), <예수님이 좋아요>(초등학생), <예수님이랑 나랑>(유아, 유치)에서는 가정예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예배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풍성하고 유익하다. 자녀들을 위한 설교 자료와 소그룹 활동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큐티지를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무엇보다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본문, 설교, 질문 등 모든 순서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되어 있다. 또래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흥미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유아·유치부를 위한 큐티지 <예수님이랑 나랑>은 매주 토요일을 가정예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그림카드를 활용한 활동이 포인트다. 초등학생을 위한 <예수님이 좋아요>는 매주 주일을 가정예배 자료를 제공한다. 찬양, 설교, 활동까지 아주 꼼꼼하게 제공되어 있어 따라 하기만 하면 될 정도다.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주일별 설교 자료를 PPT, PDF, 한

글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블릿 PC나 데스크톱에 PPT를 띄워 놓고 활용해도 좋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senA>는 매주 주일 ‘쉐어링 큐티(Sharing QT)’를 제공한다. 마음열기, 말씀읽기, 관찰하기, 닳아가기, 기도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설교문은 홈페이지(isena.com)에서 제공한다. 가족 구성원이 전부 성인이라면 <생명의 삶>을 활용하면 된다. 매주 주일 가족큐티나눔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문영재 목사)

제목: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

본문: 누가복음 1장 30-32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메시지

오늘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역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첫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이어 마리아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눅 1:38).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즐겨

워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순전한 믿음을 통해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낳고 천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은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며 곰곰이 되새깁니다. 우리에게 허락

하신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성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탄의 기쁨을 곰곰이 되새기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높여 기뻐하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12월 15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영원을 바랄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

에베소서 5:15~21

“세월을 아끼는 인생은 영원을 바라보고,
이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며
이 시간이 영원에 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을 ‘잠자고 있는 성도들’로 분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잠은 매우 위험한 잠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가?”라고 항의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A.D. 32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교회와 국가가 연합함으로써 핍박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평안함이 한편으로는 유익하지만 다가올 미래, 역사의 진실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깨어있는 성도들’로 분류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려면 공항에 가면 됩니다. 입국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입국장을 주목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목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잠자는 성도입니다.

시간과 영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끝나고, 영원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현재의 순간도 잠시 후면 과거가 되고 맙니다. 미래였던 내일도 내일이 되면 현재가 되고, 또 과거가 됩니다.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간과 물질

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등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분하셨고,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만물의 마지막은 보이는 만물의 마지막만이 아니라 시간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그 시간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과 영원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이 길어진 것이 영원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심의 여정을 기록한 후반부에서 시간과 영원이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최초로 시간과 영원의 문제를 성경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기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문장이 됩니다.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현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항상 현재에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로 계셨고, 미래에도 현재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세월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세월은 언제나 현재이고, 동일하며,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시계)’와 ‘카이로스’(사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엡 5:16).

이 말씀을 영어성경은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 다시 사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현대 언어로 번역 될수록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NIV에서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번역합니다. 기회의 활용이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회를 극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시간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양 때가 종종 때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스프링복 영양은 식욕이 왕성해서 풀을 먹는 데 앞에 있는 영양보다 뒤에 있는 영양이 앞에 있어야 풀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영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에서 달려오는 영양보다 더 빨리 가려고 달립니다. 목적은 풀을 많이 먹고자 하는 것인데 서로 경쟁이 가열 되어서 속도가 계속 빨라집니다. 그 스피드가 시속 94km나 되어서 치타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다 보면 처음에 달리기 시작한 이유를 잊은 채 무작정 달리게 됩니다. 앞에 절벽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때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서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피드를 조절하지 못해서 때죽음 당하는 영양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 빨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함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생으로만 해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윌리엄 맥코넬은 시간의 관점에 따라서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따라 행동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시간관리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지향적 문화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건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에 관심을 두는 문화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한 해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 해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을 숫자가 아니라 사건으로 계산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로 구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의 시계는 크로노스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계는 카이로스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육체적 나이는 33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에 쓰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도 후회가 있는 것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면 우리 삶은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하면 카이로스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서서히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세상은 벌써 심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독특한 시간계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년이 2020년입니다. 주후(A.D.) 2020년입니다. 2020년을 시간계산법에 대입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 이틀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장구한 시간처럼 보이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를 참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3,000년이 되어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자”라고 하시면 천년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천년이 너무 길고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계산법은 더딘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더디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우리 시대는 뭐든지 빨리 추구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습관이 신앙을 키우고 삶을 바꾼다 3. 전도하기

전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습관이자 사명
크리스천이라면 습관적으로 전도해야만 한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고, “습관의 씨앗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점이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그 세 번째는 전도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은 기록한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셨고,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증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막 10:1).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에 하던 대로(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셨다.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습관이자 사명이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응당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눅 4:43).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전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도하셨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다. 회당에서, 해변에서, 들판에서, 산속에서, 길가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는 역을 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빌라도의 법정과 숨을 거두신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전도하셨다. 고기잡이 어부, 불결한 사마리아 여인, 세리 마태, 물욕에 눈이 어두운 부자, 불의한 재판관으로 자신을 죽이도록 선고한 빌라도, 십자가 형벌을 받는 흉악범도 전도하셨다.

전도가 가장 쉽다고 고백하는 이영혜 권사와 황인하 집사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이영혜 권사(송파B공동체)와 황인하 집사(강서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남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전도가 가장 쉽고 고백하는 이들이다.

이영혜 권사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자(111운동)’는 온누리 전도학교의 캐치프라이즈(표어)를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권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저는 때,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합니다. 새벽기도 갈 때, 전철 탔을 때, 운동할 때, 한밤중이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관계전도도 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해서 오밤중에 나가서 전도하고 온 적도 있어요. 저에게 전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이영혜 권사는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전도한다.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며칠 전에 한 형제님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제게 어젯밤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새벽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근처 개울가에서 60대 형제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동네 사시나면서 자연

스레 말을 걸었더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암 선고를 받고 바로 어제 직장을 퇴직했다고요. 곧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그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도 ‘어쩌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이영혜 권사의 전도 이야기는 끝이 없다. 늦은 밤 11시 지하철 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고3 수험생을 전도한 이야기, 같이 운동하는 센터 회원들을 전도한 이야기, 아웃리치 가는 날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 기사를 전도한 이야기 등 이 권사의 입술에서는 전도 이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이 권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온누리전도학교에서 가르쳐주는 ‘5분 전도’를 배워보십시오. 복음을 단 5분이면 전할 수 있습니다.”

이영혜 권사는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하는 게 사명이자 꿈이다.

“저는 죽는 날까지 날마다 전도할 겁니다. 전도는 제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 호흡은 기도입니다.”

황인하 집사도 이영혜 권사처럼 전도가 가장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황 집사는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온누리교회에 왔다고 할 정도로 전도에 열심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전도에 열심을 낸 것은 아니었다.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한 사람이었다.

“아내와 결혼허락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거라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장모님이랑 아내가 포기하게 하려고 한 동안 예배시간마다 잠을 잤습니다. 그랬는데도 장인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 두 달 동안 주일에 회사에 출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고 또 해서 7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은 적도 있고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제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라면 어머니를 전도했을 텐데요...”

황 집사는 7년 만에 그토록 거부하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는 말씀이 제 마음 속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네 가족 중 한 명이

라도 전도했느냐? 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전도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기도했어요. 5개월 동안 기도하고 누나와 매형, 3개월 뒤에는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친구, 선배들도 많이 전도했지요.”

황 집사는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전도폭발훈련을 받았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잘 정리된 복음전문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 명이 조를 이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았다.

“전도폭발훈련이 1~4단계까지 있는데 높은 단계 훈련생 선배들과 함께 조를 이뤄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고교 선배, 회사 동료, 동네 지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방전도도 많이 했지요. 함께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가 너무 쉽더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황인하 집사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영혜 권사와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주저함을 느끼시는데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전도하면 생기는 세 가지 유익

전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유익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전도했다. 그들의 전도하는 습관 때문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졌다. 책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의 저자 딘 켈리는 교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둘째, 전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이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처음 한 일이 전도였다. 전도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행 2:38-41).

셋째, 전도하면 신앙이 더욱 굳건해진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불신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도리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굳건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문 앞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지옥은 입구는 있으나 출구가 없는 곳이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저주받은 장소이다. 반면 천국은 죽음과 질병, 고통과 죄, 불안과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찬양, 영생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친구, 선배와 후배, 다정한 이웃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상상해보라. 한시바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바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전도



이비오 목사
(양천공동체, 온누리 전도학교 담당)

벌써 2019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를 하기 위해 날 짜를 잡느라 분주하다. 12월은 교회공동체 식구들, 직장 동료들, 동창생, 동호회 회원 등과 함께 다

양한 송년 모임이 있는 달이다. 전도하기 딱 좋은 달이다.

얼마 전,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 권사님은 내게 “목사님, 제가 동창회 나가서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제가 원래 동창모임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과 여기 저기 놀러 다닐까봐, 노래방 가자고 하면 노래방 가서 놀까봐, 술 마시자고 하면 술 마시게 될까봐서요. 믿음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안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권사인데, 동창회 나가서 같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어떠냐고요. 놀러 다니는 거면 동창회에 안 갈 텐데, 전도하러 가는 것이면 흔쾌히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은 어떤 친구가 가정의 힘든 일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동창들이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누는 적이 있어요. 친구들의 사연을 듣고 나서 권사 친구가 저에게 힘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고, 저는 눈물로 친구들을 위해 기

도했어요. 그랬더니 동창들이 한마디씩 양심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어느 교회 권사야’, ‘나는 성당 다녀’ 라고요. 믿지 않는 어느 친구는 ‘옆집 사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데, 그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는데 너희들 보면 예수 믿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 친구와 함께 매월 한 번 있는 동창생 모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동창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식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복음을 전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1로 만나 전도지(사영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인 복음을 이성이나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향,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이성을 따라 스스로 기독교의 진리를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교향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믿던 기존 종교를 뒤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영향을 받는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진리가 없다. 각자 추구하는 진리가 다르고, 개인이 추구하는 진리는 그 개인이 속한 지역과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길거리를 가다가 배가 고프면 맛있을 것 같은 식당을 찾는다. 그러다 맛있고 유명한 식당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시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발견한 식당에 선풍기를 들이지 않는다. 대신 신뢰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지역과 식당 이름을 검색한 다음 사람들이 매겨놓은 포인트, 리뷰, 댓글을 살펴본 다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평점이 달린 식당으로 향한다. 이처럼 현대인에게 진리는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단체, 지역이다.

전도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방법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1로 만나서 절대적인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개인의 이성으로 접근해서 독립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고 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믿는 사람들이 둘 혹은 셋씩 짝을 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복음공동체를 만들어 주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건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맞는 전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올 연말 믿는 동창에게 연락해서 믿지 않는 동창들을 만나서 전도하기를 권한다.

모더니즘 시대 전도방법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맞는 전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친구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예요.”

나는 이 권사님의 간증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람들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모더니즘은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첫째,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과학). 둘째, 인간의 이성(중립적,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과학적 사고). 셋째, 인간의 이성은 독립적이다. 이러한 모더니즘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교 선교단체 및 교회들이 1:1전도를 도입해서

따르기로 결단했다.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전도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1990년대 이후 2020년을 맞이하면서 현대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 진리란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둘째, 내가 믿는 것은 나에게 진리이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리이다. 셋째, 인간의 이성은 객관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 문화의

“남양주M센터 건립을 돕시다!”

15년 간직해 온 남양주 온누리M미션의 바로 그 꿈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중심지역에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남양주 온누리M센터(이하 남양주M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남양주M센터는 최대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처소이다. 그런데 한정적인 예산문제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중단될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00선교와 온누리M센터에서 마련해 준 후원금으로 착공은 시작하였는데 내부공사 잔금이 부족한 형편이다. 남양주M센터가 경기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12개의 언어별로 예배드리는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양주 광릉내 일대가 이주민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7천여 명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 2만여 명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읍 일대에만 이주민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말마다 시내가 이주민들로 북적인다. 외국인 식료품점이 있고, 무슬림들의 기도처가 있을 정도로 이주민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 그런데 이주민들을 품고 섬기는 기독교 시설이나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온누리M미션과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남양주M센터 건립을 꿈꾸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남양주M센터는 약 529㎡의 면적으로, 예배실 3개, 식당(다목적실), 어린이실, 청소년실, 보건실, 상담실, 소그룹실, 사무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대 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주중에는 남양주와 포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문화자녀 방과 후 공부방, 주말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처소, 한국어교실, 다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는 현재 네팔어와 힌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향후 태국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12개의 언어별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중심 역할을 할 남양주M센터가 한정된 예산문제로 건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15년 동안이나 이어



남양주M센터 외관, 남양주M센터는 3층을 임대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온 남양주 온누리M미션의 꿈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 단순한 공사비용 후원이 아니라 남양주 온누리M미션과 이주민들의 소중하고 간절한 꿈을 이뤄주는 것이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의 역사와 열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예배를 드린 지 꼬박 15년 됐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주민을 섬기겠다는 사명을 품고 이주민들을 찾아다녔다. 가장 먼저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 이주민들을 교회로 초

청한 과정부터가 은혜이자 감동이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 성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농장과 공장을 찾아갔다.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며, 교회로 초대했다. 이주민들에게 카레를 한 솥 끓여 배불리 먹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주민들은 남양주 온누리M미션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 둘씩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 세례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로 헌신한 이주민도 있다. 인도에서 온 해리 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 지체들이 해리 형제와 1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교제하면서 그가 세례 받고, 일대일제자

양육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해리 형제는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해리 형제의 고향은 인도 북부다. 힌두교 분산과 가까워 힌두교세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한 곳에서 나고 자랐다. 고국으로 돌아간 해리 형제는 가족부터 전도했다. 그 다음은 친인척을 전도하고, 25명이 출석하는 가정교회를 세웠다. 최근에는 이웃 마을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해리 형제처럼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 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면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신청한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주민 두 명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세워진 순간부터 가슴에 품은 꿈이 있다. 12개의 언어별로 예배드리면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품고 섬기는 꿈이다. 우리가 그들을 돕자. 후원금과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 것으로 그들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 아니겠는가.

문의: 010-3937-3927, 후원계좌: 하나은행 486-910017-61804 남양주온누리M센터

사역칼럼



임현태 장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창립되었다. 올해 창립 15주년 감사에 배를 드렸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구리여고 앞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태동했다. 남양주 기도처 시절 구리와 남양주 지역에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선교에 뜻이 있는 몇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남양주 온누리M미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인들을 찾아가 섬겼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장주를 한 사람씩 찾

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민들을 교회에 보내주면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무료로 의료지원을 해서 건강하게 농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이주민들을 교회에 데려왔다. 처음에는 이주민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모든 것이 부족했다. 힌두교인들은 쇠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삼겹살을 구워줬는데 돼지고기도 잘 안 먹었다. 이주민들에게 쇠고기라면을 끓여주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이주민 2~3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민 3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 중에서 20여 명은 고국으로 돌아가 사역하고 있고, 국내에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은 매주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례 받은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자 간

남양주M센터 세우는 꿈

증이다. 인도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인도에 있는 절친한 친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이 너무 신실하고 본이 돼서, 누군가 자기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냐고 물으면 그러겠다고 대답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그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형제는 인도에 3억 개가 넘는 우상들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 우리의 말에 동의하고 세례를 받은 적도 있다. 3년 전 인도로 돌아간 한 형제는 가정교회를 세워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옆 동네에 가정교회 하나를 더 세웠다고 한다. 매주 25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세례 받고, 일대일제자양육 과정까지 수료한 다음 네팔로 돌아간 어느 형제는 가족을 구원하

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 끝이다. 이 곳에 와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이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의 총성된 일꾼들이 지난 1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꿈이 있다. 바로 남양주M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그곳에서 10개 이상의 언어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한다. 영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남양주M센터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떠나는 목회자의 인사 4. 김정숙 목사



병원선교 25년, 감사로 물든 나의 목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배자, 위로자, 상담자, 복음 전도자로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은퇴라는 단어는 일의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은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말한다.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병원선교를 시작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1987년 5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원목을 알아주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가 서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상의 환우 옆에 앉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그 환우가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에 나오곤 했다. 환우들이 한결같이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병원선교에 일대 일제자양육을 접목해 볼 생각으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다. 오늘은 안 울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이 늘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없는데도 눈물이 쏟아져서 민망하기 그지없는 주일예배를 드렸었다. 유아실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가끔 만난 정우영 권사님과 김영애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눈인사 정도만 했는데 후에 김영애 권사님의 요한복음 강의를 참여하면서 9주 동안 새신자교육과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고 당시 ‘용산 3순’에 투입되었다. 순예배에 안 가려고 숨어 다니고 있었는데 흥무자 권사님의 전화 독촉을 못 이겨 시작한 순예배가 추억이 되었다. 당시 황용오 순장님 가족의 따뜻한 사랑은 가난한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순원들과 오찬을 마련해 주시고,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셨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정말 가난했던 나를 위해 당시 중앙대학병원 소아과 과장님이셨던 유병훈 장로님과 아내 정영선 권사님 또한 등록금을 준비해 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삼성서울병원이 1994년 11월 개원을 앞두

고 있을 때 나는 장로회신학대학원 목연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함께 신우회를 섬겼던 이정희 교수님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삼성서울병원 개원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님은 “원목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꿈을 꾸셨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이 완공되기도 전에 나를 원목으로 내정하셨다. 속으로 “노 핑큐”를 반복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기도드렸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원목이 사례비가 없는 열악한 곳이라고 해서 제가 손들고 가서 8년 동안 무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좋은 여건을 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농담처럼 드린 내 기도를 들어 주셨다. 1994년 8월 삼성서울병원 개원 전에 드린 신우회 예배는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드린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그날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추진본부장님이 종교행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선 어디론가 가버린 상태였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의자에 앉았는데 입에서 방언이 쏟아졌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이정희 교수님은 한결 음에 추진본부장님 사무실로 달려갔다. 결국 추진본부장님이 이날 신우회 예배를 “못 본 척 하겠다”고 하셨다. 그 후 신우회 예배는 드릴 수 없고 한가족 의료 봉사회라는 동호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삼성서울병원 원목으로 부임했다. 어느 날은 병원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내게 한 마디를 건네셨다.

“그러니까 김정숙 전도사님이 빛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가 병원선교를 할 수 있는 성훈(성령의 훈계)이 되었다.

김종인 장로님께서是我的 영적인 멘토셨다.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자로, 또 위로자로 나를 도와주셨다. 김종인 장로님의 배려로 사이닝글로리 6기를 마치

고, BEE KOREA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 때 김사무엘 목사님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축복이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사무엘 목사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나를 보면 늘 활짝 웃으시며 반겨 주셨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린이들이 같이 당시 그 좁은 선교부 사무실에 가서 잠시 앉았다 오곤 했다. 그 기억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매주 토요일 6시 BEE 기도회에 참여하고, 국내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경험 이 병원선교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중행사처럼 가장 추운 계절과 가장 더운 계절에 중국 훈춘교회 등지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다. 나에게는 그때가 환자 곁을 유일하게 잠시 떠나서 새로운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시간 덕분에 환우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뒤에 포틀랜드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사역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내가 너의 멘토이다. 그리고 네가 멘토가 될 위치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 음성과 더불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온 세상으로 흘러내린 보혈의 피의 능력이 생생하게 경험되었다. 보혈의 피가 내 몸에 수혈이 되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 앞에서 홀로서기를 바라셨다. 주님의 손길만이 능력이 되어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세움을 받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다. 교회도 낮설고, 병원도 물 위의 기름처럼 외로운 곳이었지만 동료 목사님들과 교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교회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매년 2월 목회사관학교에서 함께 웃고, 친해지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온누리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었다. 특별히 4년 전 목회사관학교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으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는데 환갑 선물이었다. 그날 나눔 시간에 생각보다 넉넉한 봉투 두께에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목사님

들과 행복한 나눔을 가졌다. 세상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 환갑 선물을 주실까? 이 지면을 빌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깊은 사랑과 지난 연말과 올해 초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다녀올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보내셔서 기도할 때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는 말씀을 주셨다.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올해 은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은퇴가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들였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 일은 ‘공활의 마음으로 환자 사랑’이다. 또한 아웃리치를 통해서도 새 일을 주셨는데 병원 내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된 예배에 대한 꿈이다. 인생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확실한 비전 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 남은 시간을 참다운 예배자, 위로자, 상담자, 복음 전도자로 헌신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장로님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를 드린다. 특히 병원선교 담당 조청구 장로님, 온누리 호스피스 담당 최민철 장로님께 감사드린다.

최근까지 나의 고질병인 허리 약함의 고통을 아시고 늘 도와주신 정상건 장로님께 감사드린다. 주일에 만나면 악수 잘해주는 최득린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감사드린다. 모든 동역자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나의 삼성서울병원 사역은 계속 이어진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운대로 Acts 29의 역사를 새롭게 실현해 나갈 것이다.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살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12월 9일 월요일

하나님의 소망: 한 사람을 택하시다

창세기 11:27~32

이재훈 목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아브람일까요?

첫째, 아브람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

랐습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브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람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배경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것에 충격을 받았고, 파스칼은 낙타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성을 의지하던 삶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자신이 죽을 뻔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증거입니다.

셋째, 아브람의 가정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이루시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잘 낳는 가정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가정, 고난을 겪은 가정, 자녀를

낳지 못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브람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함, 부족함, 연약함, 지우고 싶은 과거와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시 91:1-2).

하나님은 아브람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초대받은 아브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의 힘이 우리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중세 어둠 가운데 마틴 루터를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0일 화요일

하나님의 약속: 복을 위한 분리

창세기 12:1~6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또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람은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사이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람은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

다. 아브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람은 작은 식구를 이끌고 이동하는 나그네,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지만 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이것을 위해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습관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이제 낯선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소수의 가족들이 원주민들과 어떻게 부딪힐 것이고, 땅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모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내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은 허무맹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후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 그늘 아래 머물고 싶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가 아브람 같은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전심을 다한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1일 수요일

하나님의 보호: 믿음의 탈선

창세기 12:10~20

이재훈 목사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 습관, 사고방식,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떠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 내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주장을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람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람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였지만 한 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첫걸음

을 내딛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 걷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잘했다고 격려하셨지 왜 더 잘 걷지 못하냐며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리어 더 큰 은혜와 견고한 믿음으로 아브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한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행전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밭 불일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

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여행할 때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와 수치, 책망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다’와 ‘그 땅에 내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이 살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 했다면 살길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탈한 것이 아브람의 첫 번째 믿음의 탈선이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믿음의 탈선입니다. 사래는 아브람의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가정,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가장 가까운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아브람과 사래를 보호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 후손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을 믿음의 탈선에서 붙잡아 건져내셨습니다. 잠시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교훈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2일 목요일

하나님의 비전: 두 갈래 길

창세기 13:5~18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의 믿음의 탈선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이루어가십니다. 아브람이 실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실패와 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큰 위험을 벗어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져 심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탈선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많은 자손이 풍성하게 되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

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더욱 강대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이 믿음에서 탈선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재물로 인해 조카 롯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아브람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람이 롯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친족들끼리 싸우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

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롯은 아브람에게서 분리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롯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구습,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헛된 유전, 세상의 헛된 문화로부터 끊임없이 구별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브람의 생애였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창 13:14-17).

하나님께서서는 롯이 떠난 뒤에 아브람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다녀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녀본 곳을 모두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녀보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녀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다녀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영적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3일 금요일

하나님의 능력: 용기의 근원

창세기 14:11~16

이재훈 목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훈련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기까지는 가장 먼저 예배자로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큰 위험이 닥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요구된 훈련이자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훈련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다

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에 부딪히면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가나안은 당시 거대한 두 세력에 끼여있던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문명,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가나안 땅은 소수 종족들이 모여 있는 우상에 찢든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북쪽 연합군(그돌라오멜)이 가나안으로 내려와 그곳의 많은 민족들

을 진멸한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으로 롯이 북쪽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람은 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군과 담대하게 싸웠습니다(창 14:14-16).

아브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이기적이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람이 달라졌습니다. 318명이 아무리 잘 훈련됐다 한들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시험과 실패를 겪으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전에 없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브람 안에 생겨난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체험하게 된 것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브람이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아브람을 도우셔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주면서 권면합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창 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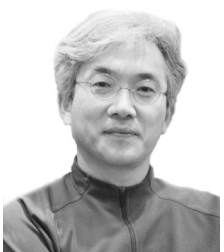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찬양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가고,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긴 살아가는 아브람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안 반 스코렐(1495~1562년)이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
리학연구소장)

몇 해 전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다. 지방 강연을 가기 위해 KTX를 타려고 지하철 4호선 플랫폼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고함소리가 났다. 나는 ‘누가

아침부터 예의도 없이!’ 라고 구시렁거렸다.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더 크게 외쳤다. 순간 그와 내 눈이 딱 마주쳤다. 지팡이를 든 그의 손이 더욱 격렬해졌다. 내심 ‘나 말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하며 구경꾼 효과(bystander effect;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현상)를 노리던 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불안했다. 어눌한 것으로 보아 중풍병 환자인 것 같은데, 면발치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 훨씬 젊어 보이는데다 금속으로 된 헌 골프채를 지팡이 삼아 거꾸로 쥐고 있었다. 뭔가 잘못 행동했다가는 한 대 언어맛을 분위기였다. 옷은 땀국물이 줄줄 흐르는데다가 몸에서 나는 냄새마저 고약했다. 그의 흐릿한 발음 때문에 재차 되물어야 했다. 지하철을 환승해야 하는데 계단 오르기가 힘이 드니 자신을 부축해달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가 내 손을 사정없이 움켜쥐었다.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력한 손아귀 힘이 무척이나 위협적이었다. 환승로는 길었고, 계단은 또 얼마나 많은지 땀이 빼질뻔할 뻔했다. 걸으려는 태연한 척 했지만 나는 그 미션을 완수하자마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났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손을 비눗물로 씻고 또 씻었다. 그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침에 보았던 그 노인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국 애리조나대학 심리학과 교수 더글러스 켈릭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7개의 ‘부분자아’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기 보호(Self-protection) 부분자아, 그 다음이 질병회피(Disease-Avoidance) 부분자아이다. 자기보호 부분자아는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침략자나 맹수들에게 생존을 위협받던 시절부터 몸에 밴 습성일 것이다. 질병회피 부분자아 역시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부족이 거의 몰살되는 끔찍한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한 조상



안 반 스코렐의 ‘선한 사마리아인’.

들 때부터 자연스레 질병감염 상황에 민감해졌을 것이다. 아마도 위생상태가 불량한 병자 인데다가 위협적인 골프채까지 들고 있는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 나의 자기보호 및 질병회피 부분자아가 동시에 극도로 활성화된 듯하다.

문득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눅 10:25~37)가 떠올랐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진 채로 구타를 당해 초주검이 된 채 길가에 버려졌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말이다. 오늘 묵상할 본문이기도 하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자마자 오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다. 오히려 온갖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정성껏 치료해 준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극심한 천대를 받던 경멸의 대명사였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학자의 말에 예수님은 되묻는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답한다. 예수님은 명령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안 반 스코렐(1495~1562년)이 그린 ‘선

한 사마리아인’이다. 미술사가들은 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이상주의와 북유럽 회화의 자연주의를 잘 결합시켰다고 평가한다.

스코렐의 그림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자. 그는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을 16세기 네덜란드의 한 도시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비교적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길을 가던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해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눅 10:33).

그러나 길을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눅 10:31~32).

스코렐은 그림 오른쪽 중경(中景)과 근경(近景)에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쫓무니 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중경에는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를 냉정하게 외면하고 성경책 읽으며 경건을 가장하는 제사장의 위선적인 모습이, 근경에는 권위 주의적인 황금색 드레스에 빨간 망토를 걸친 레위인이 역시 곤경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하고 길을 떠나고 있다.

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 환자를 정성껏 치료한다. 나귀는 겸손과 인내의 상징이다. 마치 이 착한 사

마리아인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눅 10:34).

치유와 구원의 상징적 의식

중근동 지역에서 올리브기름은 양식이 되고, 등불을 밝히는 등 생명과 빛을 상징한다. 또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막 6:13)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내리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도유(塗油)의식은 기쁨과 권위, 영광을 동시에 상징한다. 그러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이웃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 그 자체가 자비로움으로 이웃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름 부음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와 구원의 상징적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포도주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다. 특히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스코렐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당한 이웃을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그려낸다. 곤경에 처한 이웃은 거의 전라의 몸으로 사마리아인의 무릎에 팔을 걸치고 있다. 그의 몸은 화살처럼 팽팽하다. 미술가들이 말하는 크로스보(crossbow) 자세이다. 사람의 몸을 석궁 모양으로 표현하는 양식을 말한다. 이런 포즈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이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팽팽해진 활시위와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혹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자 프란스 드 발의 말처럼 ‘우리에겐 타인이 내는 고통의 신호에 반응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안 반 스코렐이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정에 이런 자비로운 본능이 잘 묘사돼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병약한 노인 한 사람에게조차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못했던 ‘못난 이웃’이었던 나는 그의 그림을 보고 무안하고 당혹했다. 그림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았다.

“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이주민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다

서빙고, 평택, 인천, 안산 몽골어예배 하가훈 실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이주민 대상 하가훈에서 부부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 학교(이하 하가훈)팀이 이주민 예배공동체를 위한 ‘미니 하가훈’을 지난 7일(토) 연세대학교 대부도 수양관에서 개최했다. 서빙고, 평택, 인천 온누리교회,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 20가정이 참석했다. 미니 하가훈은 찬양, 기도, 말씀, 특순, 강의, 나눔, 파송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말씀은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주제로 가나 목사(서빙고 몽골어예배)가 선포했다. 김동식 집사는 ‘피골과 줄’, 서용진 집사는 ‘보물

찾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상록 장로(수원 하가훈)는 파송식과 대표기도를 했다. 이광수 선교사(평택 몽골어예배)는 “몽골은 유목 문화로 인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면서 “미니 하가훈은 몽골 이주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벨케 전도사(안산M센터)는 “미니 하가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만드

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누리는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철 형제(평택 몽골어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더멋진세상, 일대일제자양육 워크숍

르완다장로교단 목회자 15명 참석

NGO 더멋진세상이 르완다장로교단 7개 지방회 대표 목회자 1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달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됐다.

르완다장로교단 7개 지방회 대표 목회자들은 일대일제자양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르완다ADEPR교단과 응호망과교회를 건립했고, 르완다장로교단(EPR)과 협력해서 무하지교회를 세웠다. 유소년부, 청년부, 장년부를 중심으로 이미 일대일제자양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두란노서원과 함께 킨 아르완다어로 번역한 일대일제자양육 교재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2019 코자마 크리스마스 집회 개최

8개 교회 일본어예배부 450명 참석

2019 코자마 크리스마스 집회가 지난 12월 1일(주일)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KoJaMA(Korea-Japan Ministry Association)는 일본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번 집회는 온누리교회, 할렐루야교회, 사랑의교회, 오륜교회, 지구촌교회, 일본선교회, 일본복음선교회, 서울일본인교회 등 8개 교회 일본어

예배부에서 약 450명이 참석했다.

김진솔 형제(요셉공동체)는 “2019 코자마집회에 참석하면서 일본선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철희 목사(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 담당)는 “일본선교가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코자마집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2019 이천선교 감사의 밤 행사 개최

2000선교본부가 선교에 헌신한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 ‘2019 이천선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5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 ‘2019 이천선교 감사의 밤’ 행사에는 박종길 목사, 김홍주 목사, 신현승 장로, 선교사, 선교 헌신자, 재능기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하나님의 마

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면서 “그 영혼을 되찾는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선교헌신자들을 위로하고 축하했다.

선교사 자녀 김주영 양은 “대학 진학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맸 때 방향을 제시해준 2000선교와 재능기부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김영선 기자

2019 CMN 감사의 밤 행사

온누리교회 의료봉사인 80명 참석

온누리교회 의료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5일(목)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2019 CMN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9 CMN 감사의 밤 행사는 박영한 장로의 대표기도, 정요한(바이올리니스트), 김예나(피아니스트) 특

Charities 사역 소개, 리더십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미국 브리스톨에 위치한 King's way Charities를 견학한 내용도 나왔다.

박영한 장로(CMN 대표장로)는 “CMN 모든 이웃리처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전도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병순 장로(CMN)는 “벌써 CMN의 내년 사역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2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자세한 장소 추후 공지)에서 진행된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2-2182-911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442	최영준	이촌	1138461	권재현	SNS	1138478	고봉섭	여호수아	1138503	이은혜	부천 화평
1138443	오영은	신용산	1138462	정수연	SNS	1138479	이정환	여호수아	1138504	홍주석	대전 Belief
1138446	임한수	대전 남누리	1138463	김강식	SNS	1138480	김성균	여호수아	1138505	신귀화	한강
1138447	이지혜	부천 소망	1138464	정여진	SNS	1138481	김성영	여호수아	1138506	이준성	하늘
1138448	오소영	부천 믿음	1138465	강하은	인천Web	1138482	류민	여호수아	1138507	BAOKEJIAN	중국어예배
1138449	임광수	한강	1138466	이정민	인천Web	1138483	강기용	여호수아	1138508	YUAN LI	중국어예배
1138450	황미나	수원 HIS	1138467	정인희	경기A	1138484	박종한	여호수아	1138509	임창현	S브릿지
1138451	정재윤	인천 동누리	1138468	김현경	성동광진	1138485	최에스터	여호수아	1138510	송승일	강남D
1138452	김윤경	SNS	1138469	장정준	S브릿지	1138486	김주은	허브	1138511	양연식	양지 동누리
1138453	이세라	SNS	1138470	김혜정	S브릿지	1138487	조시본	허브	1138512	한경혜	양지 동누리
1138454	최시형	SNS	1138471	김경자	서초B	1138488	김새론	허브	1138513	이지안	갈렐
1138455	김두혁	SNS	1138472	신영임	강촌	1138489	신창호	강남A	1138514	유지용	갈렐
1138456	이해성	SNS	1138473	남옥희	강남A	1138490	곽영미	분당B	1138515	신희진	요셉
1138457	김현지	SNS	1138474	김태연	경기A	1138491	이상욱	부천 소망	1138516	이영근	도곡
1138458	권용일	SNS	1138475	이주연	여호수아	1138492	문미령	부천 소망	1138517	김정임	양재
1138459	윤재선	SNS	1138476	장성동	여호수아	1138501	한광천	부천 화평			
1138460	조한석	SNS	1138477	김미양	여호수아	1138502	노성희	J4U			

CGNTV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28일 오후 5시 Acts29비전빌리지

CGNTV 세라핌합창단이 오는 28일(토) 오후 5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제18회 정기연주회 ‘Sound of Music’을 개최한다. 지휘 최영은, 피아노 고지영,

트레이너 윤재홍, 안무 김정환이 맡는다. 주영광찬양사역팀과 포천어울림합창단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03-1203

■ 사무장으로 전역축하 인사말



/ 주수일 장로(사역장로회 회장)

우리 교회는 오늘 26명의 사역장로를 다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켜보면 우리 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교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며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오늘 전역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180여 명의 사역장로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해온 장로님들이 교회의 사무직에서는 일단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섭섭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 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Acts 29의 사역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같은 시대 같은 일을 해온 동료들이 하나하나 떠나 대화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교회와 함께 섬기던 동료들이 계속 모여 친밀한 교제를 가질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사역에서는 일단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서 은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직책을 주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스스로 찾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장로는 오늘

사역장로의 역할과 사역장로회

전역하는 분들을 합치면 18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면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장로님들도 사역장로로 편입됩니다. 사역장로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이 많아지자 7명의 안수집사를 뽑아 교회를 치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방으로 나가 말씀 사역에 전념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고,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일대일이 나 큐티, 세계선교나 가정사역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교회들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은 이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사역분야는 외부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 전역하는 사역장로님들은 70대 초반으로 사역장로회에서 가장 젊은 세대입니다. 사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면 남은 생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최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 나가노 수해복구 봉사자 간증



/ 박세혁 팀장(여호수아공동체)

일본 나가노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신청을 할 때만해도 큰 기대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봉사활동이나 하고 오자는 마음이 컸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만큼 내 마음 한구석에도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본 나가노에 도착해서 태풍피해 현장을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규모가 컸다. 드넓은 사과농장이 온통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집주변은 온갖 잔해물들이 널려 있었다.

현지인 목사님과 인솔자의 지시를 따라 과수원에서 진흙을 거둬내는 작업을 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곳에서 만난 몇몇 일본인들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다. “한일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멀리서 와 줘서 너무 고맙다”며 울먹이는 한 아주머니를 볼 때는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절감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어떤 가치보다 큰

다.

이번 나가노 수해복구를 통해 내가 진정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나가노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왔지만 진정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드넓은 사과농장이 한순간에 진흙으로 덮여버린 것처럼, 내 마음에도 어느새 세상의 진흙으로 쌓여 있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만을 갈망하며 살았던 내 모습은 진흙으로 덮인 사과농장과 별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 “세척하 힘들지? 그래도 괜찮다.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진흙을 거둬낼 때마다 내 마음의 진흙도 주님께서 걷어 주셨다. 살다보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나가노 수해복구를 통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박사랑, 부: 박하철, 모: 백은지

사랑이라는 그 이름

2018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 사랑하는 아내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정일이 서너 달 남았을 때부터 아내와 나의 머릿속에는 뱃속의 예쁜 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지 그 생각만 가득했다. 주변에서 좋은 작명소를 소개해주기도 했고, 멀리 갈 필요 없이 꽤 괜찮은 작명 어플이 있다며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이름을 기다렸다. 며칠 만에 딱 떠오를 것 같았던 예상과 달리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좀처럼 이름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내와 내가 서로 마음에 드는 이름이 달랐고, 어쩌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몇 가지 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 탈락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는 아내의 배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장인어른께서 결혼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하철아, 은지야, 너희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시작을 ‘오래 참는 것’,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셨다. 살다보면 어찌 좋은 날만 있겠니.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살겠지만 성경 말씀처럼 참고 견디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거라.”

장인어른께서 성경 말씀을 빌려 우리 부부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어린 시절부터 슬하에 들었던 단어인데 그 단어에 담긴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아이에게 전해줘야 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귀하고 뜻 깊은 단어로 다시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딸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좋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가족 모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주님 앞에 서약한다.

■ 사랑챔버 부모 간증



/ 배현경 집사(이정익 단원 어머니)

기적 같은 20년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이하 사랑챔버)는 약 40여 명의 단원과 부모들, 40여 명의 사랑플러스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 교회에서 모여 팀별로 연습하고, 매년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콘서트, 국내외 초청 연주 등을 하고 있다. 사랑챔버의 지난 20년 여정에는 손인경 집사님과 사랑플러스 선생님들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헌신, 어머니들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 수백 번 반복된 단원들의 연습이 쌓여 있다. 처음 사랑챔버에 왔을 때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했다. 내 아들 정익이의 모자란 면만 보고, 닦달하고, 비판하는 엄마였던 나는 선생님들의 칭찬과 편견 없는 사랑을 보며 회개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시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달래고 어르면서 지도하시는 지휘자 손인경 집사님의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었다.

사랑챔버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어머니들의 일사불란한 역할분담과 밝은 표정이었다. 다소 튀는 행동을 해도 웃어주고,

내 아이처럼 달래주고 받아 준다. 단원들이 연습하는 동안 옆방에서 어머니들은 기도를 드린다. 선생님들을 위해, 연주회를 위해, 건강이나 집안사정으로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또 수화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서 아이들의 연주 무대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항상 표정이 굳어 있던 정익이의 얼굴이 사랑챔버를 다니면서 환해졌다. 무대에 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어려운 곡을 무한반복하면서 도전정신도 갖게 되었다. 나 역시 긍정적인 엄마로 변했다. 사랑챔버의 연주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게 한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작은 선교사’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며, 주님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챔버 단원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안전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기적 같은 2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원을 바랄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번역할 때 왜 ‘시간을 다시 산다’는 의미로 번역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를 “시간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아 사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탄은 시간의 영역까지 침투해서 삶을 혼란시킵니다.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또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우리 시간의 끝인 죽음을 이용해서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시간의 끝이 아님에도 사탄에 속는 자들은 시간의 끝인 죽음을 오해해서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간 시간을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시간 끝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간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에 파묻혀 휩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다.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셨지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후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실상은 이 땅에서의 삶은 ‘사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시간 속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서론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의 서론이요, 준비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 마셜 웰리가 간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매우 희귀한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2분 만에 죽게 됩니다. 1991년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에 태어나서 22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개월 후에 두 살 된 딸마저 죽고 맙니다. 두 자녀가 그렇게 죽고 난 뒤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은 두 살 밖에, 혹은 2분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 자녀들은 2년만, 혹은 2분만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즐겁고, 멋지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지역이라고 소개된 곳을 여행하신 분과 인터뷰를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공항에서 내려 집에 도착해서 “역시 집이 최고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멋진 바닷가와 호숫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곳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근사한 여관, 멋진 지역에서 쉴 수 있게 하시지만 절대로 그곳이 고향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시간 속에 효율적으로 살아야 인정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시간관념입니다. 세속적인 시간관리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16~17절).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시간관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후회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인생은 영원을 바라보고, 이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이기에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며 이 시간이 영원에 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더욱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볼수록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목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역사’



류모세 목사
(살롬이스라엘 담당,
〈열린다 성경〉시리즈
저자)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가 재채기를 하면 유럽 전체가 감기에 든다’는 경구를 떠올린다. 볼테르, 디드로, 루소, 콩도르세 등 프랑스 출신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이 시기를 선도했는데, 특별히 <사회계약론>을 펴뜨린 루소의 영향은 유럽 대륙을 넘어 신대륙에까지 ‘미국의 독립전쟁’(1776-1783년)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탕진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프랑스 대혁명(1789년)과 함께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살생부 1호에 교회와 유대인이 함께 올랐다. 절대왕정을 지지하며 온갖 특혜를 받던 교회는 혁명의 적이었고, 유

대인 역시 구약 성경을 공유하기에 같은 부류로 취급된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주동자들이 내부의 헤게모니를 통해 하나씩 처형되고, 살아남은 미라보 공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유대인들은 탈출구를 찾게 된다. 그는 평등사상에 기초한 혁명정신을 역설하며 유대인들에게도 평등한 시민권이 주어지도록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했다. 그는 당대 유대인 최고 석학인 모세 멘델스존의 친구인데 그를 통해 알게된 3500년의 유대문화와 지혜에 경탄했다. 미라보공의 도움으로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대공동체는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이 영국에 항거해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즐기던 유럽의 국왕들은 자신의 앞마당인 프랑스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대항하는 대(對)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고,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채택한 프랑스는 유럽 왕정국가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내부의 혼란과 유럽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외부의 위협으로 당시 프랑

유대인, 나폴레옹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스는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해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나폴레옹은 27세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어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고, 대 프랑스 동맹을 붕괴시키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후 승승장구하며 1804년 국민투표로 폭넓은 지지 속에 나폴레옹 1세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공화정을 선포하며 등장한 나폴레옹이었지만 스스로 황제가 되고픈 야망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다. 베토벤은 열렬한 공화주의자였는데, 새로운 시대를 연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교향곡 <보나파르트>를 작곡했다가 그가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속물...’을 외치고 헌사를 취소했다고 한다. 이것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다.

유럽 대륙을 점수한 나폴레옹의 눈에 유대인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나폴레옹은 18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 종교회의(산헤드린)를 소집해 12개의 질문을 던져 유대공동체의 성격 파악에 나섰다. 질문의 요지는 유대인들이 프랑

스를 그들의 나라로 여기고, 그 법을 수호하고, 복종하겠다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 이에 유대공동체는 나폴레옹이 원하는 대답을 마련해 답신을 보냈다.

“유대인은 종헌을 금하고, 이혼을 허용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출신 유대인의 조국이고, 랍비는 경찰력이 없고, 유대인의 결혼금지는 이 교도에게만 적용되고 기독교도를 이교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유대 종교회의의 답변에 만족한 나폴레옹은 유대인들의 자치를 허용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은 나폴레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한 나폴레옹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근대 유럽의 일등시민이 되어 역사 발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4월 30일~5월 6일
-이탈리아 2020년 9월 28일~10월 5일
문의: 010-4902-1022

14 온누리신문

영 어 예 배

2019년 12월 15일(주일) | 제1274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 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일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타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 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 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 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7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정상구 총무 (010-4731-6514) 일본어예배 간사 모집 자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자, 일본어 통번역이 가능한 세계교인 문의: 최민희(010-4764-8382) 2000선교 선교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모집 기간: 1월 7일-28일(화~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건너편 신동아쇼핑센터 3층 시급: 8600원 자격: 온누리교회등록교인, 컴퓨터기본능력, 전화응대 친절히 하실 수 있는 분 지원: 이력서 이메일 접수 (onnuri2000m@gmail.com), 모집: 12월 27일까지 문의: 박지현 간사(02-3215-3372)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 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 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 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 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 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봉사자 모집 모집: 한국어 및 토픽 강사, 기타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강의, 행정 및 학습자 관리 등 다문화평생교육원 업무 자격: 한국어 자격증 소지자, 이주민에 관심 있어이신 분 시간: 평일 및 주말 조정 가능 문의: 070-4439-1704
--	---	---	---	--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 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 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 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 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 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본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 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 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교(36개월~7세) 오전 9:00 꿈팡(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은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꿈팡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1, 8, 15, 22, 25, 29: 칸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주 일 예 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 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를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튼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삶을 변화시키는 CGNTV의 맞춤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원하는 채널 CGNTV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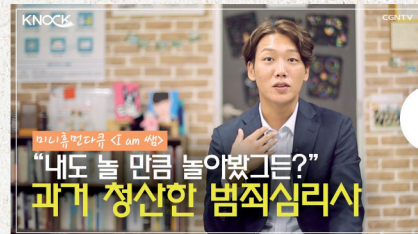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를 소개합니다.



CGNTV 대표채널
CGNTV



3분에 담은 말씀과 신앙
CGNTV SOON



마음을 두드리는 짧은 영상
KNOCK노크

문화로 복음을 더 널리, 더 깊이 전합니다.



조셉의 좌충우돌 전도 도전기
풋소앤샵



어린이를 위한 재밌는 복음
CGNTV K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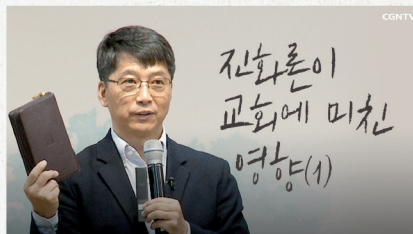


은혜 가득한 찬양
CGNTV Praise

풍성한 성경 지식과 삶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성경
CGNTV 바이블 스터디



거짓에 맞서는 진리의 콘텐츠
CGNTV 창조과학과 신앙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
CGNTV 나침반

20
20



2020년 CGNTV 말씀달력을 판매합니다.

판매처 두란노서점 (서빙고, 양재) 문의 02-796-2243 (CGNTV 후원기획실)

컬러 ■ 브라운 ■ 레드 ■ 그레이

*판매 수익금 전액은 CGNTV 미디어 사역에 사용됩니다.